



전북은행, 정읍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전북은행이 10일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정읍시에 400만원 상당의 여름용품 꾸러미 80상자를 전달했다.

정읍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 김태서 정읍지점장, 정현정 정읍시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여름용 이불과 선풍기, 보냉가방, 냉감토시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4종의 물품이 담겼다.

기탁된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정읍시와 함께 매년 선물꾸러미와 여름철 폭염 대비 물품, 겨울철 방한용품, 보건·위생용품 등을 기부하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소방서, 8월 모범소방관 3명 표창 수여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현장 구조 활동과 안전 홍보 등 각자의 위치에서 도민 안전에 헌신한 임순택 소방위, 김용은 소방장, 이상훈 소방장을 8월 모범소방관으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소방관 표창은 각종 재난 현장 및 대민 업무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소방 조직 발전에 기여한 직원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길웅 서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이 온전히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상서면 지사협, 어르신들께 선물꾸러미 전달

부안군 상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선, 민간위원장 박춘섭)는 지난 7일 상서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주방·생활용품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는 각 마을별로 추천받은 취약계층 어르신(마을당 2~3명)을 대상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방·생활용품 11종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서기 폭염 날씨 속에서도 협의체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선물꾸러미를 직접 챙기고 안부를 살피는 등 훈훈한 이웃 봉사를 펼쳤다.

박춘섭 민간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어 보람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중앙동, 폭염 속 독거노인·경로당 순회 홍보

군산시 중앙동(동장 이영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예방 홍보 및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관계자는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촘촘한 돌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하기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정읍 환경교육 이끌 강사들 수업 역량 높인다

‘2026 지역 환경교육 강사양성 심화 과정’ 운영… 수업 설계부터 인공지능 활용까지

수정읍시환경교육센터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을 이끄는 강사 20여 명의 수업 역량을 높이는 심화교육에 나섰다.

2026 지역 환경교육 강사양성 심화과정은 지난 6일 시작해 오는 9월 4일까지 센터 2층 교육장에서 모두 10차례 진행된다. 지난 6일에는 학습자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변화를 이끄는 ‘수업의 본질’을 주제로 첫 교육이 진행됐으며, 7일 두 번째 교육에 이어 오는 13일 세 번째 교육을 연다.

이번 과정은 센터 소속 환경교육 강사들이 지역의 특성과 교육 대상에 맞춰 수업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수업 설계 △연령과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방법 △강의계획서와 수업지도안 작성 △말하기 훈련과 강의 시연 △인공지능 도구 대규모 자료 활용 이론·실습 등이다.

센터는 이번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 강사들을 지역 초등학교 환경교실과 여러 기관·단체에 파견해 대상별 맞춤 환경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질 높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강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 환경교육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도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환경교육 시범도시로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려면 현장 강사의 수업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을 마친 강사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환경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병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최우수

전북대학교병원(이정환 병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적절한 약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 과정에서 처방된 원내·원외 약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전북대병원은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제 사용을 줄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약물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9.62%로 전체 평균 58.92%보다 크게 낮았다. 주사제 처방률도 1%로 전체 평균 13.06%의 10분의 1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전체 평균이 43.54%였지만 전북대병원은 0%를 기록해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 결과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고



려한 적정 진료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고려한 최적의 처방을 내리기 위해 모든 의료진이 고심하고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합리적인 약제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평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에 500만원 기부… 누적 1358만원

전평신협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며 신협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평신협(이사장 채한목)은 10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평신협 본점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허동욱 전북지역본부장과 전평신협 채한목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임직원 6명이 참석했다.

전평신협은 지난 2017년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2023년부터는 전북신협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추진한 ‘1신협·1아동 결연사업’에도 동참해 매년 정기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500만원 기부로 전평신협의 신협사회공헌재단 누적 기부금은 1,358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평신협은 누적 기부금 1,000만원 이상인 신협 아너스클럽 브론즈 등급에도 합류하게 됐다.

지역사회에 대한 전평신협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전평신협은 덕진구에 완주군 내 위기기업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은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에 올해로 5년째 참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도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에서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은세상나눔 캠페인’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아이들의 금융·경제 지식을 높이는 ‘신협 어바먼트로딩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전평신협은 지난해 4월 ‘우수활동 신협’으로 선정돼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채한목 전평신협 이사장은 “전평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신협의 아들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신협사회공헌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청 역도선수, 아시아주니어 무대서 동메달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선수단 김요한 선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 중인 「2026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용상 156kg을 들어 올리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요한 선수는 2006년생으로 작년에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에 입단하여 「2025년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2025년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 등 대회에 출전하여 1년 동안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고, 올해에는 「2026년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2026년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전국역도경기대회」 등 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진안군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입상은 국제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로, 김요한 선수의 꾸준한 훈련과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의 체계적 지원 결과로 평가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아시아 무대에서 당당히 메달을 획득한 김요한 선수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진안군은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요한 선수



35사단, 전북 통합방위 관계관 워크숍 개최

육군 35보병사단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나섰다.

35사단은 10일 전주 덕진경찰서 강당에서 전북 지역 통합방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통합방위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의 통합방위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기관별 통합방위 임무 수행 체계를 재정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35사단을 비롯해 전북경찰청과 도내 14개 경찰서, 전북소방본부 및 14개 소방서, 국가중요시설 보호 담당자 등 도내 통합방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테러 동향과 주요 테러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작전지역 환경 평가, 통합방위의 개념과 법적 근거, 관계 법령에 따른 기관별 역할,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등 통합방위체계 전반을 공유했다.

특히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오만호 기자

남원소방서, 교통사고 피해자 신속 구조 활동

남원소방서가 지난 7일 오전, 남원시 신정동 외곽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발생한 사고에서 비번인 식정119안전센터장 전기정 씨(근무 30년)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에 나서서 60대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외곽도로로, 사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후속 차량이 추가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2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전기정 센터장은 즉시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구급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직접 현장 대응에 나서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고 조수석 방향으로 진입해 차량 내부에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다.

특히 전 센터장은 후속 차량들이 사고 차량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피해 갈 수 있도록 경광봉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을 직접 유도하며 2차 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경찰, 선유도해수욕장서 성범죄 예방 캠페인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지난 7일 선유도해수욕장 일대에서 피서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이용 성범죄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휴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해변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피서객들에게 범죄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전단지과 함께 ‘휴대용 악물검사키트’를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은 “휴가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6년 11월 20일 등록(인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680912 전주시 완산구 7-2내부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95-4113	종로지사 010-9388-6674	남원지사 632-3386	익산지사 010-9842-2726	진안지사 433-3084	정읍지사 538-3787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원지사 632-0385	장수지사 010-332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385	순창지사 633-0444		
호주지사 010-665-9935	팔복지사 253-6944	군산지사 010-6329-6577	부안지사 010-2425-4182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53-6999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